

두 아버지의 아들들(렘 강해 설교 32)

성경말씀: 렘36:1-3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모든 단어들의 보존, 이런 책은 전무후무하다. 렘36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에덴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해 왔다.

렘36의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두루마리에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고 추가하신다. 시12:6-7

우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우리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자녀 교육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인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것인가?

사람다운 사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십계명, 4대 6, 다섯째 명령: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날들이 길리라.

성경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마8의 백부장, 이교도, 가버나움, 마비 병 걸린 중, 고쳐 주십시오. 가서 고쳐 주겠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권위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우리 교회의 성장, 아이들의 유입, 같이 예배드림, 부모들의 바람: 인성 교육,

남을 배려하는 인간, 도와주는 인간, 섬기는 인간(막:1-:45), <두 아버지의 아들들>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상하의 훈계

여러 왕들의 이야기, 불순종하는 왕들, 순종하는 왕들, 모든 인간의 대표적 사례들이 들어 있다.

사마천의 사기, 공자의 논어, 맹자, 소크라테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을 능가하는 인간상
오늘 읽은 렘36에서 우리는 두 아버지의 두 후손들을 보게 된다.

서기관 바룩이 주의 집 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자세히 듣고 통치자들에게 알려 이들도 바룩을 데려다가 모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일의 기폭제가 된 인물: 미가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반면에 여호야김은 말씀들을 들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집행하신다(30-31).

미가야는 누구이고 여호야김은 누구인가?

BC 628년 예레미야가 대언을 시작함, 그 뒤 5년이 지나서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주의 집에서 율법 책을 발견함(왕하2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율법 책에서 필사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함(신17:18-19).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책을 떨시하였는지 대제사장이 주의 집에서 보수 공사를 하다가 책을 발견함.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낭독하매 왕이 옷을 찢고 두려워함(10-11).

이 선한 왕이 바로 유다의 요시야 왕이다. 그에 대해 성경은 22:1이라고 말할.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다시 한 번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심.

바로 그 날로 요시야는 개혁을 착수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월절을 지킴

(21-22). 이집트 탈출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 이것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이미 늦었다고 하신다(26).

바로 그때에 이집트의 파라오스고가 바빌론과 전쟁을 하러 오다가 요시야를 죽이므로 그가 죽음.

적당한 때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116:15)

요시야의 문제: 아들들을 개관으로 키웠다. 자식들이 크면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의 뒤를 이러 여호아하스가 왕이 됨(32). 악하게 행함(세 달 동안). 파라오느고가 폐위 조치
그의 어머니는 립나의 예레미야의 따라 하무달, 성경은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밝힌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 강조, 솔로몬 사후 아들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왕상14:21)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을 바꾸고 통치하게 함(34). 11년 동안 악하게 행함(37).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의 브다야의 따라 스부다, 느부갓네살의 침략, 다니엘 등 포로(BC 606)
그가 죽으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요시야의 손자)이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감.
그 역시 악하게 행함(24:9).

느부갓네살이 그의 삼촌인 맛다니야를 취해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꿈(24:17). 요시야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립나의 예레미야의 따라 하무달, 악한 것을 행함(24:19).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모두 악하게 행함, 유다의 심판과 멸망

미가야는 누구인가?

울법 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직접 낭독한 사람, 사반, 그는 요시야 왕 당시 국무 장관
요시야와 사반은 같은 날 떨어져 두렵게 하나님을 대함
사반은 왕은 아니었지만 아들들을 바르게 키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유다의 통치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줌(렘26:24).

미가야의 사촌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말리야가 예루살렘 함락 시 예레미야를 구해 줌(39:14). 총독
그마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떨어져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를 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품성 교육

자녀 교육의 핵심

인성을 갖춘 다음에야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 공자의 논어 학이편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솔로몬의 잠언도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망치는 것이다. 훈련시켜야 한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경책이 들어 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22:15).

어른들이 해야 할 일: (1)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 찾아보고 격려해야 한다.

(2)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 교수의 주장, 자녀, 직원, 후학을 위한 인성교육은 술선수범이 해답이다.

우리 교회 어른들의 상황

나이는 들었어도 영적으로 아이들이 많다. 이들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경책을 받아야 한다.

배우지 않은 것, 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다.

언제까지 아이들로 남아 있으려 하는가? 히6:1-3

그래서 9월부터는 교육실이 마련되는 대로 심화 과정을 연다. 구원과 교회 예배, 킹제임스 성경, 재림과
은사, 이스라엘의 역사 등

결론

울법을 발견하고 같은 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던 두 아버지

한 아버지는 짐승 같은 자식들을 낳고 괴로움 속에 죽었다. 유다의 심판과 저주의 원인

다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아는 자손들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희망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영적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와 교회를 바꾼다. 리더가 된다.